환경공단이사장에 비전문가 정상용씨 '낙하산'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선기준과 정면 배치
이용섭 시장 캠프 선대위장 맡아…청문회 논란일 듯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 중 하나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정상용(69)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건 산하기관장 인선 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내정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3명의 공모자 중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인사 가운데 정 내정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환경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하다. 환경관리공단은 효천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영산강 시설, 광주천 자연형 하천 준공시설물, 광역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등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정을 감시해야 할 광주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환경복지)으로 이 시장 캠프 상황실장이 '낙하산 인사' '무늬만 공모' 논란 끝에 선임된 데 이어 해당 상임위 소관 공기업의 수장에 또 다시 비전문가가 내정된 것은 전문성을 강조한 이 시장의 기존 발언과는 다른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서 2명, 환경관리공단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등을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3명 중 가장 적격자를 선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수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영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란·김용집·나현·박미정·조석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위원장은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인사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정 내정자는 광주일고를 나와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 1971년 교련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됐다. 1975년 복학 후에는 다시 유신 철폐 시위 등을 주도하다 제적당했으며 2015년 뒤늦게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전남도청 항쟁지도부 외무위원장으로 참여했다. 1988년 13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문화국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광주환경공단의 전신은 1977년 문을 연 위생처리장관리소로 이후 3~4차례 조직 통합과 명칭 변경을 거쳐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금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태·반혁신적 인사 정리해야"

이용섭 광주시장 밝혀…연말 인사 대상·폭 관심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 7기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구태와 반혁신적인 시정 일부 부서, 산하기관, 지원단체 등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 6개월간 시정을 이끌면서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과거 현안들을 처리한 이 시장이 본격적인 '조직 다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3일 2018년 마지막 직원 정례조회에서 "공직자의 자세로 헌신, 봉사, 절제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최근 일부 부서, 산하기관, 지원단체들을 보면 구태와 결별하지 못하고 비혁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산하기관 기관장의 물갈이, 일부 시 부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지원단체장 교체 등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연말 시 인사, 산하기관장 인선 등에서 대규모 인사이동, 물갈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켜본 뒤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 및 철학 등의 기준에 따라 임기 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특정 지원단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생명인 (사)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내부 분열이 도를 더해가고 있고 구성원들이 자리를 놓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7개 지자체가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광주의 여건이 가장 열악한 현실에서 민선 7기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단체와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휴식중인 먹황새 천연기념물 제200호인 먹황새가 지난 2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 습지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광주 전업예술인 월평균 소득 152만원 '열악'

4대보험 가입률 저조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입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지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업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율은 84.6%에 달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문화재단이 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주최한 예술원 복지지원 정책토론회에서 박금장 공간전략연구소 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예술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자 중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부업 등 겸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구당 총소득은 월평균 197만5000원 으로 전업예술인이 152만5000원, 비전업 예술인은 212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전국단위 조사에서 예술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390만3000원으로,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수입이 절반에 그쳤다.

또한 비전업 예술인의 다른 일자리 고용형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41.4%,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기타 자영업이 25.9%였다.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은 7.0%로 지극히 낮았다.

4대보험 가입율도 저조했다. 국민연금 37.4%, 건강보험 100%, 산재보험 9.9%, 고용보험 9.6%로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56.85%, 건강보험 95.2%, 산재보험 26%, 고용보험 25.1%를 기록했다.

광주예술인의 복지실태 인식과 관련한 복지실태 만족도 조사에선 94.5%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복지과제별 중요도는 실업 후 생계(90.6%)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또한 제시된 복지 과제 중 실업 후 생계(90.1%), 노후대비(89.4%), 교육훈련(87.3%) 등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3.3%만이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63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61.9%로 상대적 인지도가 높았으며, 예술인패스사업이 48%로 뒤를 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소명, 창의, 실용, 융합'이라는 핵심가치를 추구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발전 아젠다 발굴 및 정책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지역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민선7기 출범에 앞서 광주전남의 27개 시군구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등 지역 아젠다를 선도하였다.

최근에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시기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양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시·도정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모든 직원이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광주전남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6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

광주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오는 6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시 교육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광주인권회의,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주최한다.

기념식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5월 유가족들로 구성된 광주트라우마센터 '소나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참여단체 소개 영상과 인권 토크쇼,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시민합창단' 공연으로 이어진다.

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에 인권작품 수상작 전시회, 캘리그래피 인권 다짐 액자 만들기, 인권영화 상영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평화당 서구지역위원회, 서구청과 정책협의회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갑·을 지역위원회는 3일 오전 7시30분 광주 서구청 3층 상황실에서 광주 서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구정 주요현안과 진행 사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천정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김명진 서구갑 지역위원장, 김옥수·김수영 서구의원, 오광록 광주시 사무처장, 서대석 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정책협의회는 구정현황보고, 주요사업 진행상황, 주요현안사업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정배의원은 "새벽부터 회의 준비 해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은 성심껏 돕겠다"고 말했다.

김명진 위원장은"주민의 민생을 챙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정파의 차이,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풍암호수 수질 개선사업 △상무소각장 복합커뮤니티 타운 건립 △KT&G 상상마당 서구 건립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한전공대 유치등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